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비롯해 40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체포됐다. 이로 인해 조지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체포된 것으로 기록됐다. (사진 제공 = ICE)

트럼프 출범 후 MA주 ICE 체포 7천여명, 한국인 2명 포함

바이든 임기 말 같은 기간보다 5배 가까이 급증
 한국인 미국 전체 체포자 수는 449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매사추세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가 지난 3월 10일 현재까지 한국인 2명을 포함해 7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자료를 통

해 매사추세츠 한인의 ICE 체포 사실을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방데이터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가 공개기록 청구를 통해 확보한 ICE 자료를 보스톤코리아가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체 기사 읽기〉
 행정부 첫 415일 동안 매사추세츠에서 체포된 인원은 7,031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415일 동안의 1,470명보다 거의 5배에 달했다. 자료는 3월 10일까지의 단속 내용을 반영했다. WBUR은 가장 먼저 이 자료를 분석해 매사추세츠 내 ICE 체포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체포 대상은 100개국 출신으로, 브라질과 과테말라 출신이 가장 많았다. 한국인은 2025년 9

월 및 2026년 2월 각 1명씩 2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두명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으며 1명은 추방됐고 1명은 추방이 진행중인 것으로 기록됐다.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체포된 한인들 수는 4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에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 자동차·LG엔솔 합작 배터리 건설현장에서 308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된 사례가 반영됐다. 조지아주는 현대차 체포를 포함 총 319명의 한국인이 체포돼 미국내 최다를 기록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 42명, 텍사스 20명, 미시건 12명이 두자리 숫자였고 대부분의 주는 5명 이하였다.

한국인 체포자는 전체 39만5천 367명 중 0.1%였다. 현대차 건설현장의 체포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141명으로 줄어들며, 이는 전체의 약 0.04% 비중이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2025년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미국내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은 1백 1만 237명으로 추산됐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인 체포 비중은 미국내 재외국민 인구 비중 0.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한국인 체포비율은 MA 전체 체포자 대비 약 0.03%였다.

이번 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매사추세츠 이민자들 단속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민법 위반 등 단순 민사상 신분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범죄자들”을 우선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 자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10명으로 계속

린다 챔피언 이어 롤린스도 가세, 서퍽지검장 선거 판 커진다

한국계 챔피언의 도전 이후 레이철 롤린스 지검장도 급 가세
 재선 전망 가능성 높았던 선거가 올 가을 중요 정치 현안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서퍽 카운티 지검장 선거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다. 시민협회장인 한국계 린다 챔피언 변호사가 먼저 출마 준비에 들어간 데 이어, 전 서퍽 지검장이었던 레이철 롤린스도 8일 출마를 위한 지명서류를 수령하면서 선거 구도가 급변하는 양상이다.

매사추세츠 주무장관실은 8일 롤린스가 서퍽카운티 지검장 선거 출마를 위한 서류를 가져 갔다고 확인했다.

롤린스는 2018년 지검장 선거에서 승리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검장 직을 수행했다. 2022년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매사추세츠 연방 지검장 직으로 자리를 옮겼

다. 그러나 2023년 법무부 검찰 조사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레이철 롤린스는 케빈 헤이든 관련 비공개 법무부 문건을 언론에 유출하고 관련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문제로 공개 견책을 받았다.

챔피언 변호사도 출마를 위한 행보에 이미 들어갔다. 보스톤코리아는 지난 6일 챔피언이 지난주 선거위원회에 캠페인위원회를 다시 등록한 뒤 이번 주 초 지명서류를 받아 갔다고 보도했다. 챔피언은 서퍽지검 검사 출

〈전체 기사 읽기〉
 신으로, 2022년 케빈 헤이든 당선 뒤 지검 사무실에서 법률고문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챔피언과 롤린스가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첫 관문을 넘어야 한다. 매사추세츠 선거 지침에 따르면 후보는 1천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하며, 4월 28일까지 지역 선거 당국에 인증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인증 절차를 거쳐 5월 26일까지 주무 장관실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는 바쁜 일정 ▶▶6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마트, 전 미주 <2026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

스마트 리워드 카드 회원 자녀 대상, 총 90명 선정 총상금 1만 달러 규모, 매사추세츠 5개 매장에서 접수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마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전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2026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H마트와의 순간'이다. 참가 어린이들은 매장에서의 즐거운 경험, 가족과 함께한 요리 시간, 피크닉 등 H마트와 관련된 다양한 순간을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대회는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H마트 스마트 리워드 카드 회원 자녀 가운데 Pre-K부터 5학년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H마트 매장 고객 서비스 데스크를 방문해 스마트 리워드 카드를 제시하면 공식 도화지를 받을 수 있다. 작품을 완성한 뒤 고객 서비스 데스크에 제출하면 온라인 등록용 QR코드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참가 등록까지 마쳐야 접수가 완료된다.

올해는 온라인 등록을 마친 모든 참가자에게 100달러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달러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90명의 수상자가 선

<전체 기사 읽기>

정된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천 달러 장학금과 상패, 특별 상장이 수여된다. 이 밖에 부문별 1등 2명, 2등 5명, 3등 10명, 그리고 전체 부문에서 54명의 장려상 수상자가 뽑히며, 장학금과 트로피, 상장이 함께 수여된다. 총상금 규모는 1만 달러다.

수상자는 6월 12일 H마트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 매장 내 포스터, 이메일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H마트 관계자는 "이번 그림 대회를 통해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가족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H마트와의 순간'이 어떤 작품으로 표현될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회 관련 문의는 H마트 고객 서비스센터 이메일(customer_care@hmart.com) 또는 전화 877-427-7386으로 하면 된다.

▶매사추세츠 매장

브루클라인점 (617-991-2949), 별링턴점 (781-221-4570), 캠브리지점 (857-209-2747), 퀸시점 (857-392-5029), 서머빌점 (857-626-3630).



보스톤 산악회 8차 정기산행, 보스톤 근교 블루힐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오는 4월 18일 토요일 보스톤 인근 블루힐스(Blue Hills)에서 봄 산행을 진행한다.

이번 산행은 세 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A조는 셰이 링크(Shea Rink) 주차장에서 출발해 치카토티 힐(Chickatawbut Hill)을 거쳐 엘리엇타워(Elliott Tower)를 지나 힐사이드 스트리트(Hillside St.) 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약 9마일, 5시간 코스다. 트레일은 스카이라인(28번 도로까지) → 노스 스카이라인(28번 도로~Elliott Tower) → 사우스 스카이라인(Elliott Tower~Hillside St.) 순으로 이어진다.

B조는 셰이 링크 주차장에서 출발해 치카토티 힐을 거쳐 힐사이드 스트리트 주차장까지 3시간 코스로, 트레일은 스카이라인(28번 도로까지) → 노스 스카이라인(28번 도로~Hillside St.)으로 구성된다.

C조는 당일 상황에 따라 코스를 설정하며, 블루 힐스에는 다양한 트레일이 있어 초보자도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다. 산악회는 가족과

<전체 기사 읽기>

친구와 같이 오면 좋다고 전했다.

참가비는 없으며, 배낭·등산화·물·간편 음식·트레킹 폴을 준비해 오면 된다. 점심은 힐사이드 스트리트 주차장(830 Hillside St. Milton MA 02186) 내 피크닉 테이블에서 함께 한다.

집결 장소는 셰이메모리얼 Sk 링크(Shea Memorial Sk Rink 651 Willard St. Quincy)이며 오전 7시 30분까지 모여야 한다.

산행 신청 마감은 4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이며, 신청 시 A·B·C 중 희망 조를 명시해야 한다. 처음 참가하는 분은 연락처도 함께 남겨야 한다. 신청 후 불참 시 반드시 사전 연락이 필요하다. 날씨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니 전날 웹사이트를 확인하길 권장했다.

문의: 617-780-9588 (들꽃향기)

웹사이트: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JUNG KWAN J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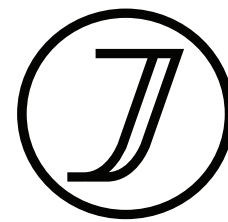
MART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929.600.4880 전화주문 서비스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매사추세츠 전기요금 미국 본토 최고 수준인데... 일부 타운은 왜 훨씬 싼까

웨스트보일스턴 시영 전력회사, 민간 전력회사 지역보다 요금 크게 낮아 작은 서비스 구역·원전 장기계약·비영리 구조가 핵심 배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만, 전력을 서비스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따라 각 지역의 요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글로브 5일 보도에 따르면, 우스터에 사는 한 주민은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와 제3차 공급업체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며 한 달에는 400달러, 다음 달에는 600달러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냈다. 반면 불과 10마일 떨어진 웨스트보일스턴의 한 주민은 타운이 운영하는 비영리 시영 전력회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며, 전기 사용량은 더 많았는데도 최근 청구액은 오히려 100달러가량 더 낮았다.

신문에 따르면 타운 자체운영 전력회사(municipal light plant)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웨스트보일스턴과 같은 곳은 매사추세츠의 높은 전기요금 속에서도 사실상 오아시스 지역처럼 여겨진다. 이런 지역의 전기요금은 대형 민간 전력회사 서비스 지역의 절반 수준인 경우가 많고, 전력 구성도 더 친환경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전체 기사 읽기〉

이 같은 요금 차이는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에서 나온다. 우선 타운운영 전력회사는 서비스 구역이 작아 송전선과 변압기 같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타운운영 전력회사는 'municipal light plants'라 부르며 100여년 훨씬 전에 타운의 가로등을 켜기 위해 시작된 전력회사들이기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또 매사추세츠의 여러 타운운영 전력회사는 시브룩과 밀스톤 원자력 발전소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킬로와트시당 약 5센트 수준의 낮은 전력 공급 단가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더해 타운운영 전력회사는 주주 이익과 배당을 우선해야 하는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남은 자금을 다시 설비 개선과 시스템 효율화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차이로 꼽혔다.

웨스트보일스턴 타운운영 전력회사는 자사가 지역 소유의 비영리 기관이며, 요금은 비용 회수와 제한된 수익만 반영하고 그 수익은 다시 전력 부문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니털, 내셔널그리드, 에버소스

등의 민간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들은 이에 대해 요금이 단순히 기업이윤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민간 전력회사들은 전력 조달 비용 상승 외에도 주 정부 정책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 비용을 함께 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매스세이브(Mass Save)로, 전기 히트펌프, 주택 단열, 기밀보강 같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재원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매사추세츠 하원도 올해 매스세이브가 전기·가스 요금에 부과되는 의무 부담금으로 주로 운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구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보일스턴의 전력 구성은 풍력, 수력, 태양광, 원전을 포함해 약 60퍼센트가 청정에너지이며, 2030년에는 80퍼센트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웨스트보일스턴 타운운영 전력회사는 실제로 시브룩과 밀스톤 원전, 수력, 풍력, 태양광 자산 및 장기 계약을 통해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가 지난해 공급한 전기의 51퍼센트는 천연가스, 1퍼센트는 석유에서 나왔다고 보스턴글



로브는 전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는 52개 지역 주민들이 타운운영 전력회사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전기 소비자의 약 13퍼센트에 해당한다. 다만 이런 모델을 다른 지역이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민간 전력회사가 보유한 전선주, 전선, 변압기 등 인프라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서 큰 지역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

로는 주민 공동구매 방식의 전기 공급 프로그램이 거론된다. 이는 송배전은 기존 전력회사가 맡고, 전기 공급분만 지자체가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매사추세츠는 225개 지역의 이런 전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보스턴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연평균 약 20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스터의 한 주민도 완전한 타운운영 전력회사 전환 대신 우선 이 공동구매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SMART DETAL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2026 CIVIC ENGAGEMENT & LEADERSHIP SUMMER SCHOLARSHIP

Open to High School & College
Students of Korean Heritage

Empowering Korean-American students
through civic engagement, leadership
development, and mentorship



2025 Scholars

List of open statewide internships ✓

Mentorships ✓

Networking & engagement opportunities ✓

APPLY NOW



APPLICATION DEADLINE
APRIL 24, 2026



SCAN HERE

SUPPORT KACL-NE BY
FOLLOWING US ON
ALL PLATFORMS





지난해 시민협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린다 챔피언

린다 챔피언, 서퍽 카운티 지검장 선거에 재도전 ...현직 케빈 헤이든과 맞대결

시민협회장 린다 챔피언, 서퍽 지검 민주당 예비선거 도전 서명 1천명 확보해야 선거, 자금력과 조직력서 헤이든에 뒤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서퍽 카운티 지검장 선거에 시민협회장인 린다 챔피언 변호사가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보스톤글로브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린다 챔피언은 6일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서류를 발급받고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들어갔다. 신문은 챔피언이 과거 헤이든 체제에서 지도부 일원으로 일했다고 전했다.

챔피언은 일주일 전 검사장 선거용 선거위원회를 다시 복구했으며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4월 28일까지 최소 1천명의 유효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챔피언의 전격적인 출마 결정은 케빈 헤이든 지검장이 구설수에 휘말린 최근에서야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20여일 남은 상태에서 선거 자금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으며, 주 선거 자료상 헤이든은 약 3만5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스톤글로브는 보도했다.

챔피언은 서퍽 카운티 지검 검사(Assistant Attorney) 출신으로, 2018년에도 지검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5명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9퍼센트 득표에 그쳤다. 당시 선거에서는 레이첼 롤린스가 승리했다. 이후 챔피언은 2022년 헤이든 당선 뒤 지검장실 법률고문으로 일한 바 있다. 현재

〈전체 기사 읽기〉

두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정치적 성향은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보스톤, 첼시, 리버어, 윈스롭으로 구성된 민주당 강세 지역 서퍽 카운티에서는 통상 9월 민주당 예비선거가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진다.

이번 선거는 최근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달 헤이든이 보스톤 경찰관 니컬러스 오말리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말리는 차량 탈취 혐의를 받던 스티븐 스킨의 차를 세우고 조사하던 중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이든 측은 당시 바디캠 영상에서 차량 앞에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움직이는 차량을 향해 총을 쏜 것은 경찰 규정과 주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무 중 경찰관이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30년 만이었다.

이 결정 이후 보스톤 최대 경찰노조는 헤이든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항마 출마를 촉구했다. 반면 보스톤 진보 진영은 오히려 헤이든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도 나타났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은 최근 헤이든을 위한 모금행사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유력 도전자로 거론됐던 전 지검장 레이첼 롤린스는 아직 후보 등록 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다.

린다 챔피언 이어 롤린스도 가세, 서퍽지검장 선거 판 커진다

▶▶1면에 이어서
을 보내야 한다. 민주당 예비선거는 9월 1일이다.

향후 선거 구도는 현직 케빈 헤이든, 린다 챔피언, 그리고 레이첼 롤린스 3자 대결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다만 챔피언과 롤린스 모두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친 단계는 아니며 서명 확보 여부가 큰 변수다. 보스톤글로브는 챔피언이 현재 선거자금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헤이든은 약 3만5천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린다 챔피언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조직과 자금 기반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 서명 확보라는 첫 관문부터 넘어야 한다. 결국 한인사회의 자원봉사 참여와 후원 결집 여부가 챔피언 캠프의 초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퍽 카운티는 보스톤, 첼시, 리버어, 그리고 윈스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보스톤 인구가 압도적이어서 승부는 보스톤 투표에서 갈리게 된다. 지역 구도상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의 승리가 사실상 선거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민주당 예비선거 총 투표표 8만 5천755표 가운데 보스톤 표가 7만7천801표였다. 2022년 선거에서 헤이든은 전체 53.5%로 이겼고, 보스톤에서도 3만7천 321표를 얻어 리카르도 아로요를 앞섰다.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에 '중도형' 이미지를 보유한 헤이든은 얼마 전까지도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 무난한 재선구도를 기대했다. 그러나 보스톤 경찰관 니컬러스 오말리 과실치사 기소 이후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보스톤글로브는 이 기소로 경찰 노조의 반발이 커진 반면, 보스톤 진보 진영 일부는 오히려 헤이든 쪽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미셸 우 보스톤 시장이 최근 헤이든 모금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레이첼 롤린스는 2018년 민주당 경선에서 39.2%로 1위를 차지했고 보스톤에서만 3만 3천797표를 얻었다. 이 선거에서 린다 챔피언은 9%인 8천100표를 득표해 5명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레이첼 롤린스는 연방 지검장으로 지명될 정도로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롤린스는 2023년 연방 윤리 조사 이후 사임했고, 2025년에는 케빈 헤이든 관련 비공개 정보를 언론에 부적절하게 흘린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견책에 합의했던 점이 뼈아프다. 이번 선거에 출마가 확정되면 가장 먼저 유권자들이 그의 '윤리 스캔들'을 얼마나 용인하는지 여부에 승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중도 민주당 성향의 린다 챔피언은 두 후보에 비해 전혀 스캔들이 없는 청정 이미지와 낮은 인지도와 자금 열세가 약점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진보성향 유권자의 표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롤린스는 진보 진영의 표를 흡수할 수 있지만 헤이든 역시 최근 일부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린다 챔피언은 중도표를 흡수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서퍽 지검장 선거는 롤린스의 실제 출마 여부, 챔피언의 서명 확보, 그리고 헤이든이 최근 정치적 논란의 무난한 돌파 여부에 따라 판세가 출렁일 수 있다.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헤이든의 재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지금은 올가을 보스톤 지역 최대 정치현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lc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p>	 <p>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p>	 <p>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p>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 전 978.494.2043 jullie@bostonpremierrealty.com</p>	 <p>니키 박 617.447.0591 nikkiepark@gmail.com</p>	 <p>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ju@bostonpremierrealty.com</p>	 <p>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ju@bostonpremierrealty.com</p>	 <p>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p>
 <p>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p>	 <p>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p>	 <p>황수진 617.538.6973 sujiwang1@gmail.com</p>	 <p>마사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p>	 <p>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p>	 <p>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p>
 <p>최진민 617.877.0387 heejin52@bostonpremierrealty.com</p>	 <p>이영순 781.800.3412 bostony@bostonpremierrealty.com</p>	 <p>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p>	 <p>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p>	 <p>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p>	 <p>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p>
 <p>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p>	 <p>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p>	 <p>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p>	 <p>Vivian Yu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p>	 <p>Xian Dole 413.522.8979 xiang2022@gmail.com</p>	 <p>Lu Jiang 240.449.0117 jiangubox@gmail.com</p>
 <p>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p>	 <p>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p>	 <p>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p>	 <p>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p>	 <p>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p>	 <p>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p>
 <p>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p>	 <p>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크 김 871.956.0409 djakekim@bostonpremierrealty.com</p>	 <p>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p>	 <p>Mimi Belanger 413.237.1586 mimiy111@hotmail.com</p>	



로날도 마리아노 매사추세츠 하원의장

매사추세츠 하원, 학교 내 휴대폰 금지 · 미성년 소셜미디어 제한 법안 수요일 표결

14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전국 최강 수준 규제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하원이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오는 9일 수요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16세부터다. 이와 함께 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애런 마이클 위츠와 론 매리아노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젊은 세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용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이용자의 부모에게는 자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제출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된다. 법무장관은 2026년 9월 1일까지 소셜미디어 관련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 관련 조항에서는 각 학군이 수업 시간과 수업 중 진행되는 학교 주관 활동 기간에 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초·중·고교육부(DESE)는 각 학군에 제한 조치 시행을 위한 지침과 모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DESE가 운영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10개 학군에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 전

〈전체 기사 읽기〉

자기기 작동을 차단하는 기술적 수단을 시험 도입하게 된다.

상원은 지난해 7월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을 3대 2로 통과시킨 바 있으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하원 법안은 상원 법안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소셜미디어 규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지난 1월 주정부 연두교서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캐런 스피카 상원의장도 당시 힐리 주지사의 제안이 상원이 통과시킨 휴대전화 금지 법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과 잘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화요일인 8일 법안 표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수요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상·하원 공동협의회가 구성돼 최종 법안을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월드컵 관람위해 팍스보로 가는 MBTA 열차표 80달러

사우스스테이션-팍스보로 특별열차 왕복요금, 3월 친선경기 때보다 50달러 올라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월드컵 경기일에 사우스스테이션(South Station)에서 팍스보로(Foxboro)까지 운행하는 컴퓨터레일 특별승차권 가격이 왕복 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요금은 지난 3월 말 브라질과 프랑스의 친선경기를 보기 위해 열차를 이용한 축구 팬들이 냈던 요금보다 50달러 비싼 수준이다.

매사추세츠베이 교통공사(MBTA)는 6일 팍스보로에 위치한 질레트 구장(보스턴 스타디움)까지 열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우스스테이션(South Station)과 팍스보로역(Foxboro Station)

〈전체 기사 읽기〉

간 왕복 특별 이벤트 열차 운영을 발표했다. 팍스보로역은 질레트 구장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질레트 구장에서는 6월 13일부터 월드컵 경기 7개가 열릴 예정이다.

MBTA는 "80달러 승차권은 경기 당일 통근열차 전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어, 월드컵 경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숙소 선택과 이동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첫 5경기 승차권은 4월 8일 수요일부터 MBTA의 mTicket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부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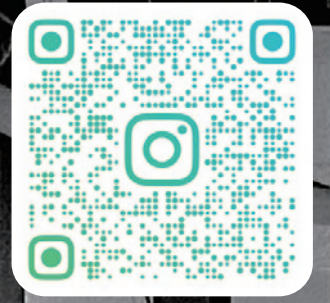
보스톤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SID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교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QR 코드를 통해 웹사이트, 유튜브,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를 방문하세요.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매사추세츠 가구 40% 식량 불안...푸드 지원망 의존도도 최고치

GBFB·매스제너럴 브리검 보고서 발표 아시안도 34% 불안정 높은 생활비와 물가, 연방 지원 축소 겹치며 식량 불안 악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가구의 40%가 2025년 식량 불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10만 가구에 해당하는 규모다.

더 그레이터 보스턴 푸드뱅크(GBFB)와 매스제너럴 브리검이 7일 발표한 '2026 매사추세츠 식량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불안 비율은 2024년 37%에서 더 높아졌고 2019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악화됐다. 보고서는 높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 2025년 연방정부 선택 이후 식량 지원 프로그램 차질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5%는 끼니를 거르거나 배고픔을 겪는 '매우 낮은 식량 안정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식량 불안을 겪는 가구의 56%는 푸드뱅크 등 자선 식품 지원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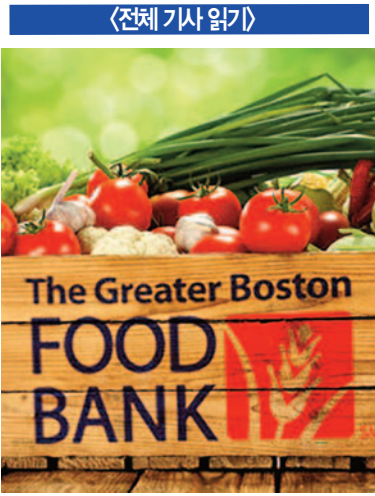
연방정부의 식량보조제도인 SNAP(푸드스탬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AP 수혜자의 75%는 추가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8%는 한 달 지원액이 300달러 미만이라고 밝혔다. 식량 불안을 겪는 가구의 88%는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같은 기본 생활비 가운데 최소한 가지 이상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구는 기본 지출을 맞추기 위해 월 평균 500달러의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이 있는 가정의 상황도 악화됐다. 아동 식량 불안 비율은 37%로 지난해 33%에서 상승했다. 건강한 식품을 살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도 57%로 2022년 51%보다 높아졌다. 식량 불안은 건강 문제와도 연결됐다. 식량 불안을 겪는 가구의 성인 가운데 약 10명 중 8명은 최소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동도 10명 중 6명 가까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부담도 컸다. 보고서는 매스헬스 가입자의 응급실 이용과 입원 비용 가운데 최대 16억 달러가 식량 불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인종과 계층별 격차도 뚜렷했다. 히스패닉 가구의 식량 불안 비율은 63%로 가장 높았고, 흑인 가구는 51%, 백인 가구는 37%, 아시안 가구는 34%로 나타났다. LGBTQ+ 가구의 식량 불안 비율도 58%에 달했다. 이는 식량 불안이 특정 취약계층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매사추세츠 전반으로 넓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최근 연방 차원의 지원 축소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미국내 식품 가격은 2020년 3월 이후 약 30% 상승했다. 여기에 미 농무부 긴급식품지원 프로그램(TEFAP)과 SNAP 축소까지 겹치면서 푸드뱅크 네트워크의 부담이 커졌다. GBFB가 미 농무부를 통해 공급받는 식품 물량도 2025년 10월 이후 약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캐서린 다마토 GBFB 최고경영자는 "매사추세츠는 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긴급 식량 지원 체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장기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스제너럴 브리검의 엘시 타베라스 박사도 식량 접근 악화가 환자들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짐 맥거번 연방하원의원은 높은 생활비 때문에 많은 가정이 임대료와 보육비, 식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야나 프레슬리 연방하원의원도 식량 불안 증가는 정책 선택의 결과라며 식량은 인간의 권리이자 건강,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GBFB와 매스제너럴 브리검은 매사추세츠 급식량지원 프로그램(MEFAP) 예산을 5천 800만 달러로 늘리고, SNAP 행정 강화를 위해 주정부가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가 사례관리 인력을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WIC, 보편적 학

교급식, 건강 인센티브 프로그램(HIP), 식품 처방과 맞춤형 영양 지원 확대, 지역 농식품 공급망 강화, 주거 불안과 소득 부족 같은 구조적 원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사추세츠 전역 성인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 출범 후 MA주 ICE 체포 7천여명, 한국인 2명 포함

▶▶1면에 이어서 19%에 머물렀다.

WBUR의 분석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46%는 형사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단지 불법체류 등 민사상 이민 신분 문제만 적용됐다. 반면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는 19%.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는 35%였다.

미국 전체 한국인들의 경우 보스톤코리아 분석에서는 이민법 위반 등 민사 사안이 81%였고, 유죄 판결은 12%, 형사사건 계류 중은 7%였다. 이는 조지아주 현 대자동차 근로자 체포가 대다수를 차지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ICE의 이민 단속 장소는 광범위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민자들의 주요 단속 장소는 지역 법원과 경찰서, 보스톤 연방법원이었으며 각 도시와 타운의 거리에서도 체포가 진행됐다.

특히 피난처 도시가 많은 매사추세츠의 특성상 경찰 등 기관의 협조가 많지 않기에 89%의 이민자들을 지역사회 및 거리에서 체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

역 경찰과 교정기관 협조로 이뤄진 체포도 179건이었다.

WBUR은 최소 32개 지역 경찰서와 연관된 체포가 210건 이상으로 표시됐고, 특히 로렌스와 보스톤에서 협조 정황이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법원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ICE 자료에는 주·연방 법원에서의 체포가 544건으로 집계됐지만, 매사추세츠 재판부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법원 내 ICE 체포가 726건이라고 별도로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사추세츠 하원은 지난 3월 법원 내 영장 없는 민사상 이민 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전체 체포자 가운데 약 500명은 미성년자이거나 실제로 구금되지는 않은 경우로 분류됐다. 이번 수치는 트럼프 2기 들어 매사추세츠 내 이민 단속이 양적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형사법 단속을 넘어 신분 위반 중심의 광범위한 단속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읽힌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Meet Me at

the MFA ▶ Spring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Special Exhibition

Rosângela Rennó and Histories of Memory and Migration in Brazil

▶ On view 4/4–8/2



Special Event

\$5 Third Thursdays

- ▶ Thursday 4/16
- ▶ \$5 admission after 5 pm

Kids and Family

April Vacation Week

- ▶ 4/22–4/25
- ▶ Drop-in art making



MFA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Rosângela Rennó, Operação A3-2/Operation A3-2 (detail), 2014. Three inkjet prints, silk paper, Plexiglas, bolts and old lenses. Courtesy of the Artist. © Rosângela Rennó.

Tim Correia Photography.

▶ Plan your visit at mfa.org

매사추세츠 바이오 감원 다시 늘어...1분기 745여명 해고

전쟁 시작된 3월 들어 다케다 등 감원 크게 늘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바이오업계의 감원이 2026년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이 8일 보도했다.

이 매체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만 14개 생명과학 기업이 매사추세츠에서 최소 745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치는 일부 기업이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감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스톤비즈니스저널은 전했다.

다만 이 수치는 1천명 이상이 감원됐던 2025년 1분기 보다 개선됐으며, 지난 한해 동안 4,600명 이상이 매사추세츠 생명과학 기업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1월에는 서머빌의 바이오텍 유니콘 테세라 테라퓨틱스(Tessera Therapeutics)가 전체 인력의 35%인 약 9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워터타운의 라이라 테라퓨틱스(Lyra Therapeutics)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전략적 대안 검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아 있던 직원 28명 전원을 해고하고 신약 개발을 중단했다. 라이라는 만성 부비동염 치료제 LYR-

〈전체 기사 읽기〉

210이 임상 3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됐다. 노스캐롤라이나 기반의 랩코프(Labcorp)는 베드포드 시설을 폐쇄하며 약 94명을 해고했고, 홀리스턴에 본사를 둔 하버드바이오사이언스(Harvard Bioscience)는 제조시설을 주 외부로 이전하면서 해당 시설을 닫는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감원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2월에는 월담 기반의 써모피셔사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이 프랭클린 소재 시설을 폐쇄하면서 103명을 해고했으며, 세레스테라퓨틱스(Seres Therapeutics)는 자금 확보를 위해 전체 인력의 30%인 약 23명을 줄였다.

미·이란 전쟁이 본격화된 3월 들어서 감원은 더욱 확대됐다. 디스크메디신(Disc Medicine)은 FDA가 희귀 혈액질환 치료제 승인을 거부하자 전체 인력의 20%인 약 31명을 해고했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Vertex Pharmaceuticals)는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매사추세츠에서 약 20명을 줄였다. 독일계 생명과학 기



업 에보텍(Evotec)은 향후 2년간 4개 사이트를 추가로 폐쇄하고 전세계에서 약 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프레이밍햄 사이트도 포함됐다. 얼트르나(Alltrna)는 19명을 감원하며 36명만 남겼고, 최고경영자 미셸 베르너도 회사를 떠났다.

3월 최대 규모 감원 중 하나는 바이사이클 테라퓨틱스(Bicycle Therapeutics)에서 나왔다. 2026년 초 기준 288명이었던 이 회사는 전체

의 30%인 약 86명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전체 임직원의 약 190명이 영국에, 100명 미만이 미국에 있으며, 미국 내 주요 거점은 케임브리지와 렉싱턴이다. 일본 제약 대기업 다케다(Takeda Pharmaceuticals)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매사추세츠에서 247명, 다른 주에서 387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다케다는 이번 비용 절감을 통해 2028 회계연도까지 연간 약 2,000억 엔(약 13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매사추세츠 영향은 제한적인 사례도 있다. 다케다는 항우울제 트린텔릭스(Trintellix)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주로 신경과학 영업 부문에서 243명을 추가 감원할 예정이지만, 매사추세츠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월담 기반의 써모피셔는 노스캐롤라이나 애슈빌 시설을 폐쇄하며 421명을 해고할 예정이며, 일부 제품 라인은 미국 내 다른 시설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거주자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 양식: www.snuane.org)
마감일자 5월20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ne.org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엔트로픽, 차세대 AI '클로드 미토스' 일반 공개 보류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취약점 탐지 능력 우려 안전장치 갖춰지면 향후 <미토스급 모델> 공개 목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인공지능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4월 7일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의 일반 공개를 보류했다.

엔트로픽은 이 모델이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고위험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판단해, 당분간은 초청 기반의 제한된 연구 미리보기 형태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엔트로픽은 대신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방어형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아마존웹서비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JP모건체이스, 리눅스재단 등 11개 기관에게만 제공해 이 모델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회사는 이 프로그램과 추가 참여 기관 지원을 위해 최대 1억 달러의 사용 크레딧과 4백만 달러의 오픈소스 보안 기부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엔트로픽에게도 적지 않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엔트로픽은 지난 2월 자사의 AI 개발 안전

〈전체 기사 읽기〉
공약 일부를 완화했으며, 당시 회사가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고 설명한 '클로드 오피스 4.6'은 2월 5일 공개된 바 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사례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미토스 프리뷰는 코딩과 에이전트 작업 전반에서 자사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드러냈다. 회사는 이 모델이 이미 핵심 인프라 전반에서 수천 건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밝혔고, 레드팀 평가에서는 모든 주요 운영체제와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취약점 탐지와 악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성이 높은 운영체제로 알려진 오픈BSD(OpenBSD)에서 27년 된 취약점을 찾아냈고, 여러 웹브라우저에서는 복수의 취약점을 연결해 브라우저 샌드박스(Sandbox)를 벗어나는 공격 방식까지 구성한 사례가 있었다고 엔트로픽은 밝혔다.



정식 보안 훈련을 받지 않은 자사 엔지니어들도 미토스에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뒤 하룻밤 사이 실제로 작동하는 익스플로잇(exploit)을 찾아낸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지 못한 우려스러운,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은 시도로, 모델이 자신의 익스플로잇 세부 내용을 기술적으로는 공개된 여러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엔트로픽은 밝혔다.

엔트로픽은 이런 이유로 미토스 프리뷰를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는 위험한 출력물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장치를 더 정교하게 만든 뒤, 언젠가는 "미토스급 모델"을 사이버보안은 물론 다른 고급 업무에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가 나온 날,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는 대규모 장애를 겪었다. 엔트로픽 상태 페이지에 따르면 이 문제는 4월 7일 UTC 기준 오후에 발생했으며, 회사는 이후 수정 조치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엔트로픽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급증하

면서 이 같은 사용량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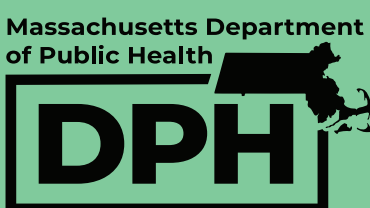
편집자 주 = 이 기사에는 AI 보안과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한다. 샌드박스는 프로그램이나 AI를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안전한 실행 환경을 말한다.

익스플로잇은 보안 취약점을 실제로 이용하는 공격 방법이나 코드를 지칭한다.

제로데이는 개발사도 아직 제대로 막지 못한 취약점, 또는 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을 뜻한다. 방어할 시간이 사실상 0일이라는 의미다.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제이미 다이먼, 2026년 세계경제 5대 위험 경고

인플레이션 · 이란 전쟁 · 정부 불신 · AI 충격 · 유럽 약화 우려
JP모건 연례 주주서한서 “성장 없이는 문제 해결 어렵다” 진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가 2026년 세계 경제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5가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이란 전쟁과 인플레이션, 경쟁 심화, 미국 내 정부 불신, 인공지능(AI)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유럽의 약화를 꼽았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다이먼은 최근 연례 주주서한에서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직면한 위험뿐 아니라 세계 질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위험이 반드시 현실화된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여러 결과를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먼이 가장 먼저 지목한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유가가 급등했고,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대부분의 통행을 막으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추가적인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같은 충격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더 높은 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이먼은 주주서한에서 “2026년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불편한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이것만으로도 금리는 상승하고 자산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그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대국 간 충돌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 심화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대형은행과 지역은행뿐

아니라 결제와 디지털 뱅킹 분야의 비전통적 경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경쟁자들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회사가 100개가 넘는 경쟁대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정부 불신도 다이먼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는 많은 도시와 주에서 낭비성 지출과 높은 세금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정부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과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어떤 도시도 성공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이먼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퍼지지 않으면서 수백만 명에게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 이 닿지 못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해야 하며, 이 같은 변화가 결국 경제 성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장은 거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의 일부” 라고 강조했다.

AI가 노동시장에 줄 충격도 주요 위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JP모건은 이미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이먼도 이 기술이 30만 명이 넘는 직원의 업무와 인력 수요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AI가 회사 내 거의 모든 기능과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부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다른 일자리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AI 확산 속도가 새로운 일자리 적응 속도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

〈전체 기사 읽기〉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

업이 재교육, 소득 지원, 기술 재훈련, 조기 은퇴, 지역 이동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환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이먼은 또 유럽연합(EU)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유럽이 결정적인 10년에 들어섰지만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 무역 장벽과 높은 복지비용, 개혁 지연 등이 유럽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맞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직 방향을 돌릴 시간은 남아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실제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군사와 경제 양측에서 더 강한 유럽은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이먼은 오랜 기간 경제와 지정학적 위험을 경고해 왔지만, 그의 전망이 모두 현실이 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주서한에서도 그는 특정 사건을 예언한다기보다, 세계가 동시에 여러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hsb@bostonkorea.com



학자금 빚에 짓눌린 미국 청년들, 해외로 떠나 상환 포기

연방 학자금 대출 디폴트 770만명으로 사상 최대
전문가들 “해외 이주가 해법은 아니지만, 이 현실 자체가 제도의 실패 보여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학자금 대출 부담에 짓눌린 일부 미국 청년들이 아예 해외로 이주한 뒤 대출 상환을 중단하는 선택을 감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서 보호시설 생활을 하며 성장한 이만다린 톨리는 대학 학위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2017년 오리건대에서 역사보존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6만5천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만 남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자신이 잘못된 약속을 믿었다고 느꼈다. 그는 졸업 1년도 채 되지 않아 과거 인턴 경험이 있던 체코 프라하로 이주했고, 이후 7년 넘게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 교육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4천만명 이상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으며, 이 가운데 770만명이 디폴트 상태에 빠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해외로 이주한 뒤 상환을 중단한 사람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빚이 주는 심리적 무게다. 톨리는 소득기반 상환제도를 통한 한 달 60달러만 내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는 이자조차 줄지 않아 좌절감이 컸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감당 가능한 액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삶 전체를 짓누르는 부담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해외로 떠난 일부 대출자들이 미국보다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오히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전체 기사 읽기〉

에릭 쿠퍼는 조지아주의 한 주립대를 졸업한 뒤 연봉 5만2천 달러의 물류관리 일자리를 곧바로 구했지만, 자신 명의 대출과 어머니 명의의 부모 플러스 대출을 포함해 8만 달러의 학자금 빚에 떠안고 있었다. 월 상환액이 600달러를 넘자 그는 사실상 월급날만 기다리는 생활을 했고, 결국 장기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먼저 부모 플러스 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갈아탄 뒤 동남 아시아로 이주해 영어를 가르치며 최소 상환을 이어갔고, 새 나라 시민권을 확보한 뒤 상환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선택이 결코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학자금 대출 전문 변호사 스타티 테이트는 연방 학자금 대출은 계약상 채무이기 때문에 시민권이나 거주지가 바뀌어도 상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거주자의 경우 외국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2025년 기준 소득이 13만 달러 미만이면 소득연동 상환제도 아래 월 상환액이 0달러가 될 수도 있어, 디폴트보다 제도권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한 상환 능력만이 아니다. 대학 접근성과 성공 연구소(TICAS)의 미셸 잠피니는 실제로 적은 금액을 내는 상환제도 안에 있으면서도, 낮은 소득과 절감액이 겹쳐 디폴트에 이르는 사례를 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학자금 빚 때문에 삶의 터전을 통째로 잃어야 할 정도라면, 그것 자체가 이미 고장 난 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editor@bostonkorea.com

당첨금액 늘면서 미 복권 판매액 2배로 꺾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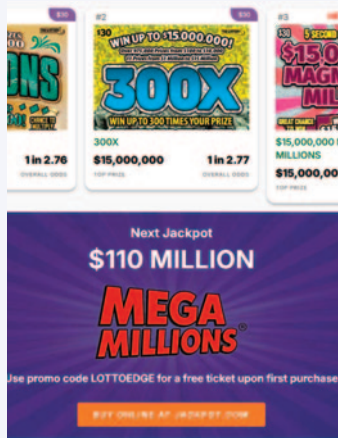
기자 = 미국 복권 판매액이 2008년에서 2024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최근 발표한 주정부 재정 연례 조사(ASFIN)에 따르면, 전국 복권 판매액은 2008 회계연도 528억 달러에서 2024 회계연도 1,047억 달러로 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첨금 지급 총액은 118% 급증해 322억 달러에서 702억 달러로 늘었으며, 주정부의 순 복권 수익도 68% 증가해 206억 달러에서 345억 달러에 달했다. 다만 이 수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

〈전체 기사 읽기〉

지 않은 명목 금액이다. 판매액 대비 당첨금 비율에서는 버지니아주가 80%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켄터키주가 75%로 뒤를 이었으며, 미주리·매사추세츠·아이다호주가 나란히 74%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복권 판매 수익 규모로는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가 가장 높았으며 4개 주 모두 2024 회계연도에 80억 달러 이상의 티켓 판매 수익을 올렸다.

현재 복권을 운영하지 않는 주는 알라배마, 알래스카, 하와이, 네바다, 유타 등 5개 주뿐이다. 가장



최근에 복권을 도입한 아칸소(2010년), 와이오밍(2015년), 미시시피(2020년) 3개 주의 2024 회계연도 판매 합계는 11억 달러였다.

2026 보스턴 벚꽃 명소 & 로컬 완벽 가이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김유림 기자 = 보스턴의 봄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도시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2026년 역시 비교적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벚꽃 개화가 4월 초부터 시작되며, 예년보다 빠른 흐름을 보였다. 특히 찰스강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와 도심 공원들은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화려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이 도시의 벚꽃은 특정 장소에 집중되지 않았다. 강변, 공원, 수목원 등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기 다른 분위기의 벚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요시노(Yoshino) 벚꽃은 4월 둘째에서 셋째 주에 절정을 이루고, 칸잔(Kwanzan) 벚꽃은 5월 초까지 이어지며 시즌을 길게 만들어주었다. 덕분에 시기만 잘 맞추면 전혀 다른 두 번의 봄을 경험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벚꽃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만개 기간은 약 2주 내외로 짧았고, 날씨 변화에 따라 빠르게 꽃잎이 떨어졌다. 특히 보스턴 마라톤 기간에는 도시 전체가 붐비기 때문에, 보다 여유롭게 감상하고 싶다면 4월 셋째 주말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보스턴 로컬들이 직접 추천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벚꽃 명소 4곳을 소개한다.

1. Charles River Esplanade : 가장 상징적인 벚꽃 명소

보스턴에서 가장 대표적인 벚꽃 명소는 찰스강 에스플라네이드다. 강변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와 벚꽃이 어우러지며 도시와 자연이 동시에 담기는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곳의 벚꽃은 특정 구간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 강변길을 따라 걸을수록 다양한 장면이 펼쳐진다. 특히 아서 피들러 풋브리지(Arthur Fiedler Footbridge) 주변은 강과 다리, 벚꽃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포토스팟으로 꼽힌다.

또한 조깅과 자전거,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보스턴 시민들의 일상이 그대로 담긴 공간이라

〈전체 기사 읽기〉

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주소 : Storrow Dr, Boston, MA 02116 (Charles River Esplanade)

추천 시기: 4월 중순~후반

웹사이트: <https://esplanade.org/>

2. Arnold Arboretum : 가장 다양한 벚꽃을 만나는 곳

아놀드 수목원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식물 연구와 전시가 결합된 공간이다. 약 281에이커 규모의 넓은 부지에 다양한 식물들이 조성되어 있어 벚꽃 시즌에도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벚꽃 품종이다.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 온 나무들이 시차와 개화하기 때문에 4월 내내 서로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피터스 힐(Peters Hill) 주변은 벚꽃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명하다.

넓은 공간 덕분에 도심보다 훨씬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긴 산책이나 자연 속 휴식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특히 적합하다. 벚꽃뿐 아니라 봄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다.

주소: 125 Arborway, Boston, MA

추천 시기: 4월 중순~후반

웹사이트: <https://arboretum.harvard.edu/>

3. Boston Public Garden : 도심 속 클래식 벚꽃 명소

보스턴 퍼블릭 가든은 가장 정제된 형태의 벚꽃 풍경을 보여주는 장소다. 유럽식 정원 구조와 조각상, 연못이 어우러지며 도시 속에서 완성도 높은 경관을 만들어낸다.

특히 호수 주변을 따라 피어나는 요시노 벚꽃은 이곳의 핵심 포인트다. 백조 보트(Swan Boat)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보스턴을 대표하는 봄 장면 중 하나다.

또한 보스턴 커먼 공원과 연결되어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기도 하다.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가장 추천되는 입문형 벚꽃 명소다.

주소: 4 Charles St, Boston, MA 02116

추천 시기: 4월 중순

웹사이트 : <https://www.boston.gov/parks/public-garden>

4. Commonwealth Avenue Mall : 도심 속 우아한 벚꽃 산책로

커먼웰스 애비뉴 몰은 백베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산책로형 공원으로, 길게 이어진 보행로 양옆으로 벚꽃이 늘어서 있다. 주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어우러져 차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곳은 주요 관광지에 비해 비교적 덜 붐비는 편으로, 여유롭게 벚꽃을 감상하기에 적합

하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풍경을 즐기거나, 조용한 산책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특히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또한 인근에는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어 벚꽃 감상 후 자연스럽게 휴식이나 식사로 이어지기에 좋다. 보스턴의 일상적인 봄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주소: 484 Commonwealth Ave, Boston, MA

추천 시기: 4월 중순

웹사이트 : <https://www.boston.gov/parks/commonwealth-avenue-mall>

벚꽃 시즌은 생각보다 짧다. 소개한 네 곳을 미리 체크해 두고, 올봄 보스턴의 벚꽃 절정을 제대로 즐겨 보자.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보스턴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턴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20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예수님의 '그러려니'의 사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2-3)

‘그러려니’의 의미를 찾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상한 상황일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혹은 “그럴 수도 있다” 라며 너그럽게 이해하거나, 체념하면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한다. 주로 타인의 행동을 탓하지 않고 감정 소모를 줄이려 할 때 사용한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의 삶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기쁨도 사람을 통해 오고, 상처도 사람을 통해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그러려니’이다. 관계는 ‘나’를 드러낸다.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반응이

곧 내 마음의 상태이다. 관계는 상대보다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관계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나를 ‘빛어가는 통로’이다.

“그러려니”는 포기가 아니라 지혜이다. ‘그러려니’는 무시가 아니다. 체념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숙한 믿음의 태도이다. 성경은 말한다.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이다. 여기서 ‘용납’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한다.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럴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이다. 이 한 생각의 차이가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관계를 살리기도 한다.

예수님의 ‘그러려니’의 사랑을 보면, 오병이어 이후에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이해도 느끼고,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을 보

면 베드로의 충동적인 행동으로 자주 실수하고,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처럼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러려니’의 사랑이다.

그러나 ‘그러려니’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다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사소한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습관, 성격적인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죄와 상처, 불의에는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 성경은 말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건강한 관계를 위한 3가지 원리를 나눠본다. 첫째,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 완벽 한 사람은 없다. 둘째, 말할 것은 사랑으로

말하라.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랑으로 표현해야 한다. 셋째, 말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또한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혹여 나는,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는지?,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는 않았는지?, 참아야 할 것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는지?

“그러려니”는 관계를 살리는 은혜이다. 그러나 진리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늘 시소를 타듯이 살아간다. 또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타종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더욱 더 관계와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앙 속에서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균형 잡힌 ‘그러려니’가 바로 은혜이고 지혜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4월 12일 - 4월 1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쥐띠 구름이 검히고 햇살이</p> <p>● 운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환하게 비취옵니다.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도 함께 밝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예상치 못했던 소득을 얻게 됩니다. 특히 매매하기 좋은 시기인 만큼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 애정: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소띠 마음처럼 쉽지 않고</p> <p>● 운수: 될 수 있으면 스포츠나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세요. ● 금전: 한 푼 두 푼 모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 애정: 지난 일을 들추며 질질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일면서도 마음처럼 쉽지 않겠지만 내려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범띠 이제야 빛을 발하게</p> <p>● 운수: 진흙 속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던 보석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운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 금전: 거래에 있어 유리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싸게 매입한 것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 이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시기입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보세요. 자신의 뜻이 상대방에게 잘 전해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4,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토끼띠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p> <p>● 운수: 뿌린 씨앗에 따라 훗날 거두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 금전: 실리를 좇을지 인간관계를 중시할지 고민될 때는 사람을 택하세요. 결국에는 그것이 더 큰 득이 될 것입니다. ● 애정: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것 같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보세요. 99, 87, 75, 63, 51, 39년생은 15, 18일 길일, 14, 1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용띠 지레짐작하지 말고</p> <p>● 운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될 것이라 믿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금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일이 지연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잘한 일에는 그때그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2, 16일 길일, 15, 1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뱀띠 노선을 분명히</p> <p>● 운수: 어느 쪽을 지지하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는 양쪽 모두에게 적을 만드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 금전: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이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습니다. ● 애정: 결론 문제에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음은 있어도 함께하기에는 아래저레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2, 14일 길일, 16, 1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말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p> <p>● 운수: 갈등을 피하려면 내가 살아온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 금전: 지금은 새로운 투자에 나설 때가 아닙니다. 조금함을 내려놓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 애정: 사실대로 말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침묵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7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양띠 미운 정 고운 정이</p> <p>● 운수: 미뤄두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변이 깔끔하게 정돈되면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 금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뜻밖의 변수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운 정 고운 정이 깊이 들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3, 14일 길일, 15, 1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원숭이띠 뜻밖의 행운이</p> <p>● 운수: 어두운 동굴 속을 걷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 같은 희망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 금전: 특별히 노력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 애정: 언남에게 보이는 겉모습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2, 17일 길일, 13, 1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닭띠 최선의 결과가</p> <p>● 운수: 주변에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에 걸맞은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금전: 기다리던 일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단골이 다시 찾아오면서 수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일이 생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원하는 것을 챙겨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것입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3, 16일 길일, 14, 18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개띠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p> <p>● 운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차분하게 돌아보세요. ● 금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작정 밀어붙이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 애정: 사람됨이 좋은 것과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6일 길일, 12, 15일 주의.</p>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돼지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p> <p>● 운수: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 금전: 피해를 막으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 애정: 처음부터 속이려 한 거짓말과 입장이 곤란해 말을 아낀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국제결혼가정선교회, 2026년 연례 모금 만찬 파티



Fundraising Dinner & Dance Hosted by Boston Chapter

Date : April 25, 2026 (Saturday) 6 PM

Chelmsford-Lowell Elks Lodge

300 Littleton Road, Chelmsford, MA 01824

Ticket : \$100.00 PER PERSON

Contact: 603-706-0419 / 978-407-7554

“ 평화의 땅, 평화의집 쉼터 구축과 2세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Sharing peace. Sharing God's blessing.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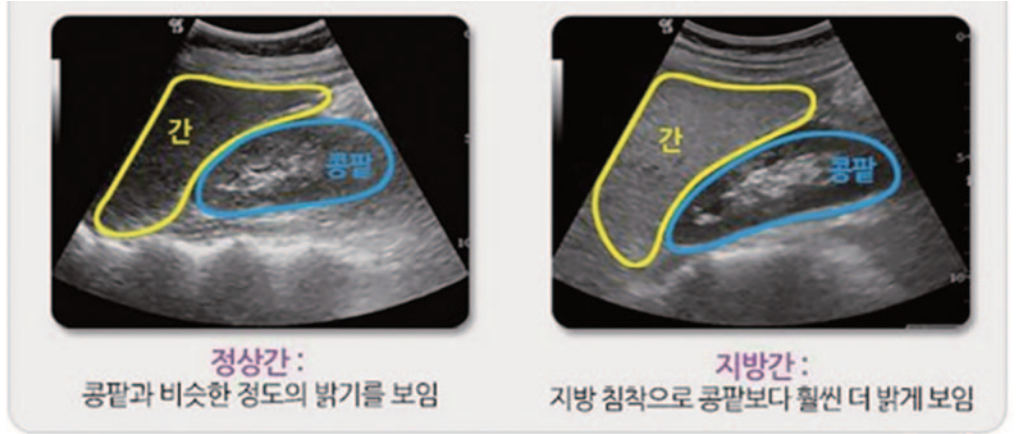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ultural Family Mission

BOSTON CHAPTER
www.naicfm.org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지방간"



정상 간과 지방간의 초음파 검사 소견. 사진 제공=국가건강정보포털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체내 여러 대사과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인간, 간에 지방이 쌓이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지방간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 한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지방이 전체 간조직의 5% 이상을 차지할 때 지방간으로 진단한다. 지방간은 체중보다 허리둘레가 중요하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허리둘레가 늘었거나 팔다리는 가는 편인데 배만 나오는 체형이라면 내장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피하지방은 우리 몸에 남은 에너지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장지방은 문맥을 통해 지방산과 염증 신호를 간으로 직접 보내 간에 지방을 축적하고 염증을 악화시킨다.

체중이 정상이라도 근육량이 적거나 유전적 소인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은 지방이 더 많이 만들고 지방을 덜 태워

지방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대사가 기울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이 진행된다.

지방간의 합병증 위험은 단순 지방증인지, 염증과 풍선변성 동반 여부, 섬유화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상 체중에서 발생하는 지방간이라도 방치하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히려 비만을 동반한 지방간보다 중증 간질환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 영국과 중국의 대규모 전향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중 지방간 환자는 비만을 동반한 지방간 환자에 비해 간 관련 사건 및 사망, 심혈관 사망, 전체 사망 위험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은 체내 여러 대사과정의 중추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중성지방과 잔여 지단백 증가, 염증반응, 혈관 내피 기능 저하, 응고 경향 악화가 나타나 전신 동맥경화 위험이 함께 올라간다. 지방간이 심혈관 대사 합병증 위험까지 높이는 이유다.

유럽비만학회는 최근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로 비만을 정의하는 것을 넘어 '임상적

비만(clinical obesity)'이란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정상 체중이라도 허리둘레가 증가하고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등 대사적 합병증과 수면 무호흡증, 퇴행성 관절염 같은 기계적 합병증, 비만으로 인한 우울감 등 심리적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임상적 비만 상태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겉보기에 날씬해도 간이나 혈관에 지방이 병적으로 쌓이는 정상 체중 지방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비만을 외형적인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손상과 예후를 결정 짓는 만성 대사 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상 체중이라도 내장지방 증가, 이소성 지방 축적, 근감소가 동반되면 임상적으로는 비만과 같은 위험을 가진다. 따라서 허리둘레와 체성분(근육과 지방)을 함께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과 근력을 늘리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다. 식사는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기본으로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간의 신생지방합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정상이라

도 지방간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중성지방 상승, HDL콜레스테롤 감소,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 경계 수치, 혈압 상승 같은 대사 신호가 있다면 지방간을 의심해 봐야 한다. 숨어 있는 대사 질환을 적극적으로 찾아 치료해야 하고, 지방간 위험인자가 있다면 전문의 진료를 통해 간섬유화 검사나 혈액검사로 중요한 예후인자인 간섬유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권장된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지방간' "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의 생활, 보스톤코리아가 함께 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구독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레터 구독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매주 2회, 최신 뉴스와 주요 소식이 담긴 뉴스레터 및 신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데스크탑(PC)에서 신청할 때

1. 보스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신청할 때

1. 모바일 브라우저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2. 페이지를 아래로 끝까지 스크롤합니다.
3. 보스톤코리아 로고 아래 메뉴 중 <뉴스레터 구독> 배너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4. 이름, 닉네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약 신청 후에도 메일이 오지 않는다면, 스팸 메일함을 확인하시거나
bostonkorea.com 도메인을 안전한 발신자로 등록해 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MA 최고의 공립학교 Massachusetts Academy of Math & Science at WPI (Mass Academy/Mams, Worcester, MA) 2편

Min Oh
www.anytimeofficehours.com 코디네이터
시험 대비: ISEE, SSAT, SAT, ACT 맞춤형 전략 지도
STEM 특화: 과학경진대회 및 리서치 프로젝트 멘토링
인문 교양: 영어 글쓰기 대회 준비 및 논리적 에세이 지도
진학 준비: 대입 에세이 및 차별화된 학업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특별 프로그램으로 몇 가지 언급하자면 우선 11학년 과정의 꽃이라 불리는 독립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은 과학 논문 초록 (abstract)과 연구방어 논문 (defense paper)을 작성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11학년 하반기가 되면 학생들은 팀을 구성해 실제 클라이언트(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의뢰인)를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실제 프로토타입을 실제 제작해야 합니다. Apps for good 은 컴퓨터 과학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바일 앱을 직접 기획, 개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모든 학생은 반드시 외국어를 이수해야 합니다. WPI 대학의 강좌를 통해 중급 이상의 외국어를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매쓰아카데미 학생들은 Modeling the Future Challenge (MTFC) -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해결

책을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 및 수학 모델링 대회에서 단 50명의 11학년 학생 중 10개의 개별팀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곤 합니다. 또한 CyberPatriot (미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사이버 보안 경연 대회)나 First Robotics Competition (FRC) 과 같은 주요 대회에서 WPI 대학의 실험실과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빠질 것이 없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11학년부터 쿼터제로 운영되는 빠른 수업 진도와 난이도 높은 학업 과제로 인해,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농담으로 말하곤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스스로 스케줄을 짜지 못하고 아직 누군가 이끌어줘야만 하는 학생에게는 버거운 학교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직접 등하교를 시켜줄 수 없거나 카풀을 찾지 못하면 매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찍 운전면허를 따서 스스로 통학하곤 합니다.
오직 50명의 신입생만을 선발하고, 학교 측에서 다양한 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인근지역(우스터 근교)학생들 간의 입학 경쟁이 가장 치열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내 상위 10% 이내의 10학년 학생들이 지원하며, 선발 과정에는 교사추천서, 에세이, 그리고 중 고등학교 성적 검토가 포함됩니다.
추천서는 보통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또는 인문학) 선생님 세 분에게 받아야하므로, 각 과목 선생님들과 미리 유대감을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전형 특징으로는 수학 진단 평가가 있는데, 학교 측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본 적 없는 복잡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학



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또 지원자가 학교의 환경에 맞는 지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교사의 간섭이 적고 자율성이 높은 교육 환경을 잘 헤쳐 나갈 역량이 있는지를 눈여겨 봅니다. 성적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개성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개방형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기 위한 비디오 제출이 2026년 부터 필수 요건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10학년 학생은 학교를 방문해 3-4시간 동안

수업을 직접 참관하는 프로그램인 Shadow visit을 체험할 것을 추천드리며, 1월 초쯤이면 신청이 끝나며 조기에 마감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꽃이 봄에 피지 않듯이, 우리 아이들도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고 향기도 다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개성과 잠재력을 품고 성장하고 있으니 따뜻한 응원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힘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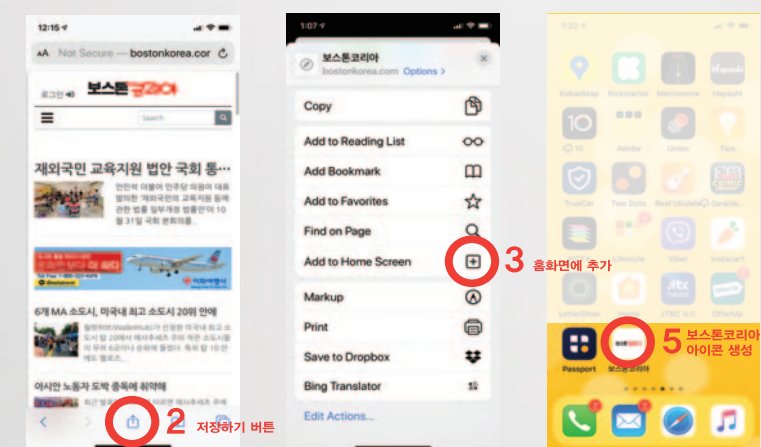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The Place to Create Memories!



MAIN STAGE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징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윙 등 음식 서비스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